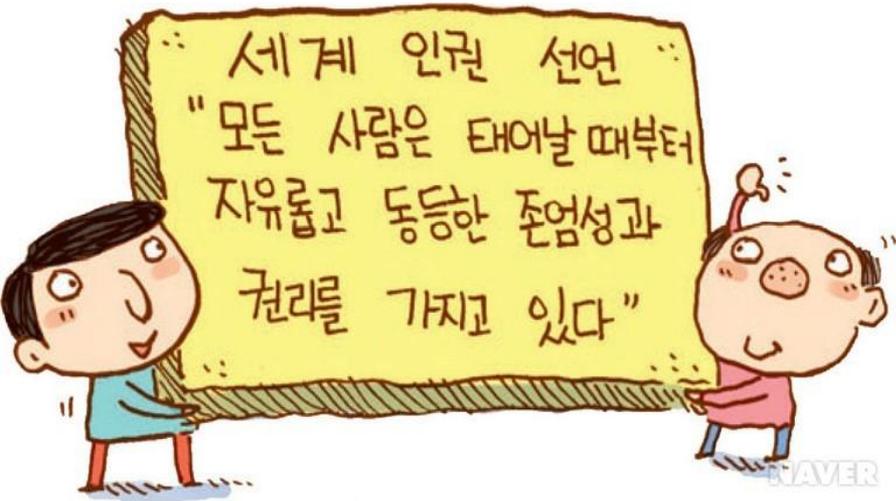


인권의 이해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 초등사회 개념사전

인권이란 인간의 자유로운 개
화Human flourishing를
가로막는 억압에 맞서는
대항권력이다.

- 조효제, 인권의 문법

세계인권선언(1948)

- 차별로부터의 자유(제2조)
-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3조)
- 노예나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4조)
-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5조)
- 자의적인 체포·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9조)
-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 받지 않을 자유(12조)
- 재산을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17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 의견·표현의 자유(19조)
-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조)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조) 등



세계인권선언(1948)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3조)
- 유급 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24조)
-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25조)**
- 교육을 받을 권리 (26조)
-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27조) 등
-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자결권)
- 천연 재화와 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권리
- 우주의 자원·과학·기술·정보의 발전과 문화적 전통·유적·기념물 등 인류 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인권관련 조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정신장애인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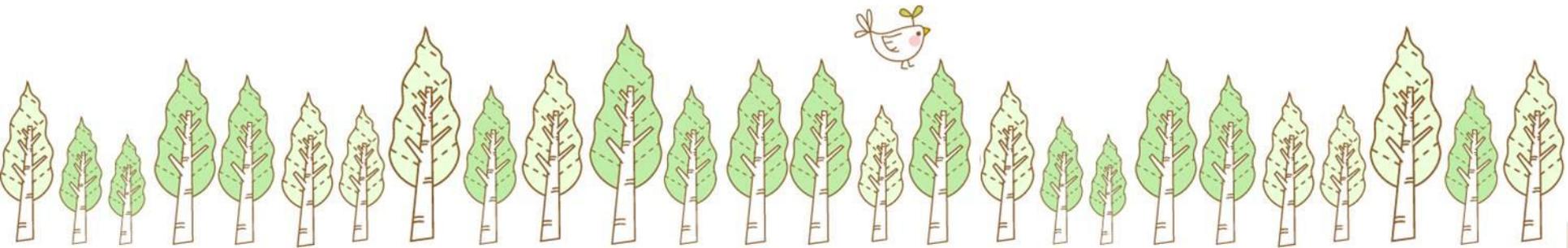
발병 초기 적절한 치료 받고,
치료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으며,
치료 후, 다시 사회로 돌아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받는 것
(2003년 미국정신건강 대통령위원회 보고서)

- 우리나라 현실?

다수가 취약계층,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

인권의 성격

1. 보편성
2. 정당성
3. 실정법의 우선성
4. 긴급성 및 필연성





1. 인권은 보편적이다.

- 인권의 주체는 인간이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등으로 표현
 - 말 못하는 유아, 법적으로 행위 무능력자,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인권의 주체가 된다.
 - 보편적 인권의 주요 관심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부정 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이다.
 -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가장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대우를 받는 이들을 향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 갖는 타당한 관심이다.
- 

2.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권리이다.

- 인권은 정당한 자기 몫을 권리로서 주장,확인하고 타인(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언어이다.
- 도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가 인권이다.

3. 인권은 실정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다.

- 모든 인권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실정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
매맞는 여성이나 아동학대의 안전을 누릴 권리의 제한
-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해서 실정법의 정당성을 평가하며 개선 내지 개혁해야 할 방향성을 지시하는 잣대가 된다.
- 인권은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를 가진 권리이다. 그래서 인권투쟁을 통해 도덕적 권리를 실정법적 권리로 제도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곤 한다.



4. 인권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인간 존엄성에 매우 중대하며 긴급한 성격을 갖는 것이다.

- 인권은 그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선택한 것
 - 인간사회가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며, 그것 없이는 여타의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긴급하고 필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우리나라 국민 중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난민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 오미숙씨의 블로그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misookzoe.blog



spot.com

지난 20일 현지 일간지 밴쿠버 선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3월 [캐나다 난민위원회\(IRB\)](#)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는데 한국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목사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박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사 결과, IRB는 2008년 10월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다만 오씨의 주장과 달리 오씨를 박해한 측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한국의 의료시스템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오씨는 한국에서 정신질환으로 세 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지만, 적절한 치료는커녕 오히려 학대를 받았다는 게 IRB의 판단이었다.

그러자 이민자 관리 당국인 시민권 및 이민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사건이 선례가 되어 한국의 다른 정신장애인들의 [난민](#) 신청이 쇄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국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올 5월 시민권 및 이민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IRB의 손을 들어 줬다. 시민권 및 이민부가 IRB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민부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는 더 이례적이어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에이블뉴스. 2009. 6. 23.

정신장애인 인권 주요 쟁점(내용적 측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입원(소) 중 정신장애인의 생활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칙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CCTV 등)



휴식과 여가
필요한 생활수준 보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정신장애인 인권 주요 쟁점(과정적 측면)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입원
- ❖ 강제적 방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이송
- ❖ 응급 입원 적용 기준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 ❖ 신체적 안정에 대한 권리
- ❖ 합당한 환경에서 치료 받을 권리
- ❖ 프로그램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쟁점
사항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 ❖ 자기결정권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 ❖ 적정생활(의식주) 주순 향유
- ❖ 권리고지 및 시설운영 참여

사회복귀·재활시설에서의 인권

- ❖ 입·퇴소 자유
- ❖ 사회복귀시설 이용 시 권리
- ❖ 사회적 역할 획득

정신장애인 인권 주요 쟁점

01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강제적 방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이송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입원·계속입원 치료 심사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의 기준 적용과 응급 입원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 의식주, 건강과 위생을 추구할 권리
- 신체적 안정에 대한 권리
- 정서적 도움을 통한 치료를 받을 권리
-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할 권리
- 합당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
- 원활한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민주적 환경
- 프로그램에 대한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 치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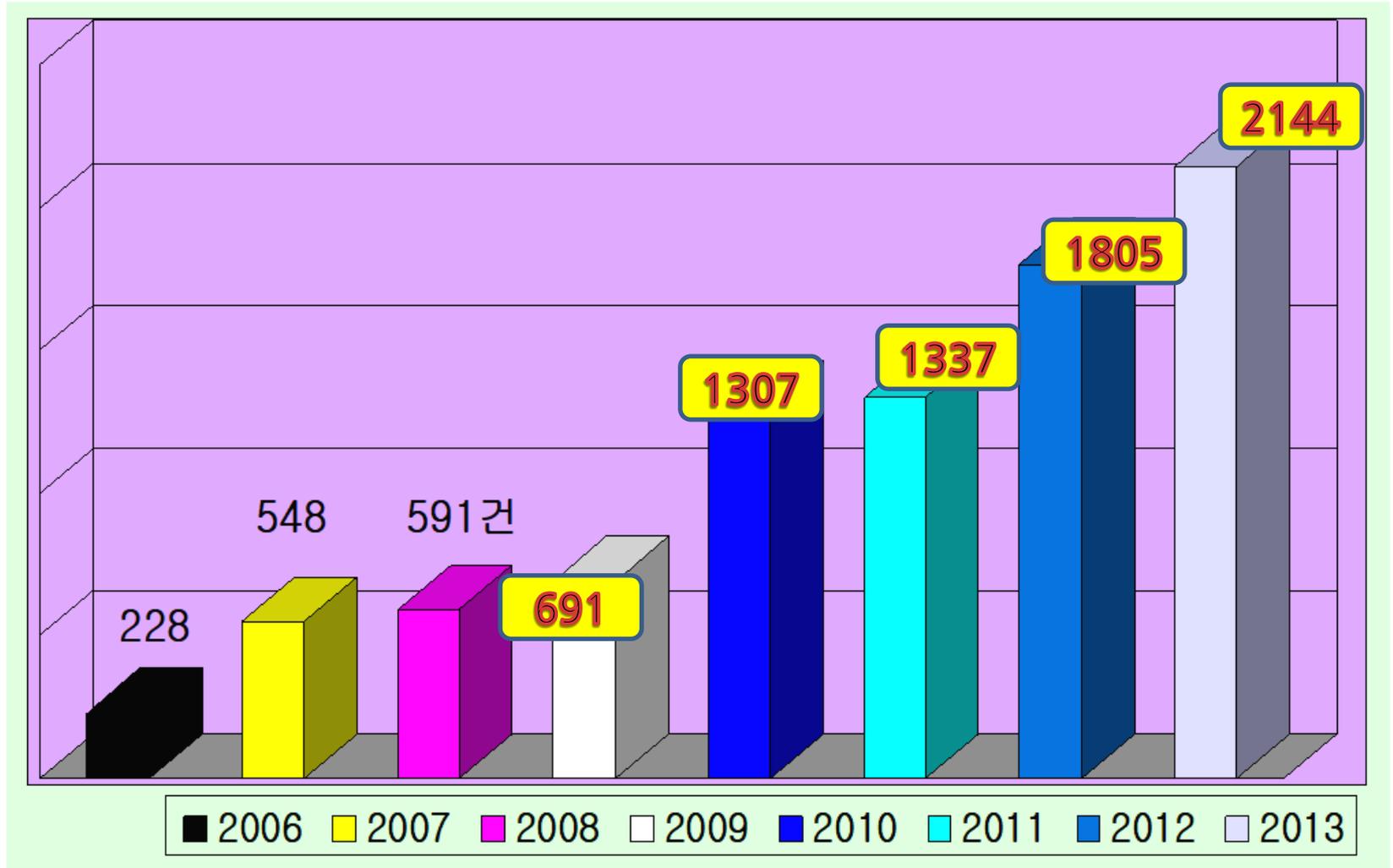
03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 적정생활(의식주) 수준의 향유
- 신체적·정서적 안전
- 노동의 자율성과 노동 조건 및 적정 보수에 대한 권리
-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 의사소통 및 통신·정보접근권
-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보호
- 권리의 고지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참여
- 종교의 자유
- 정치적 의견 표현 및 참여
- 문화생활에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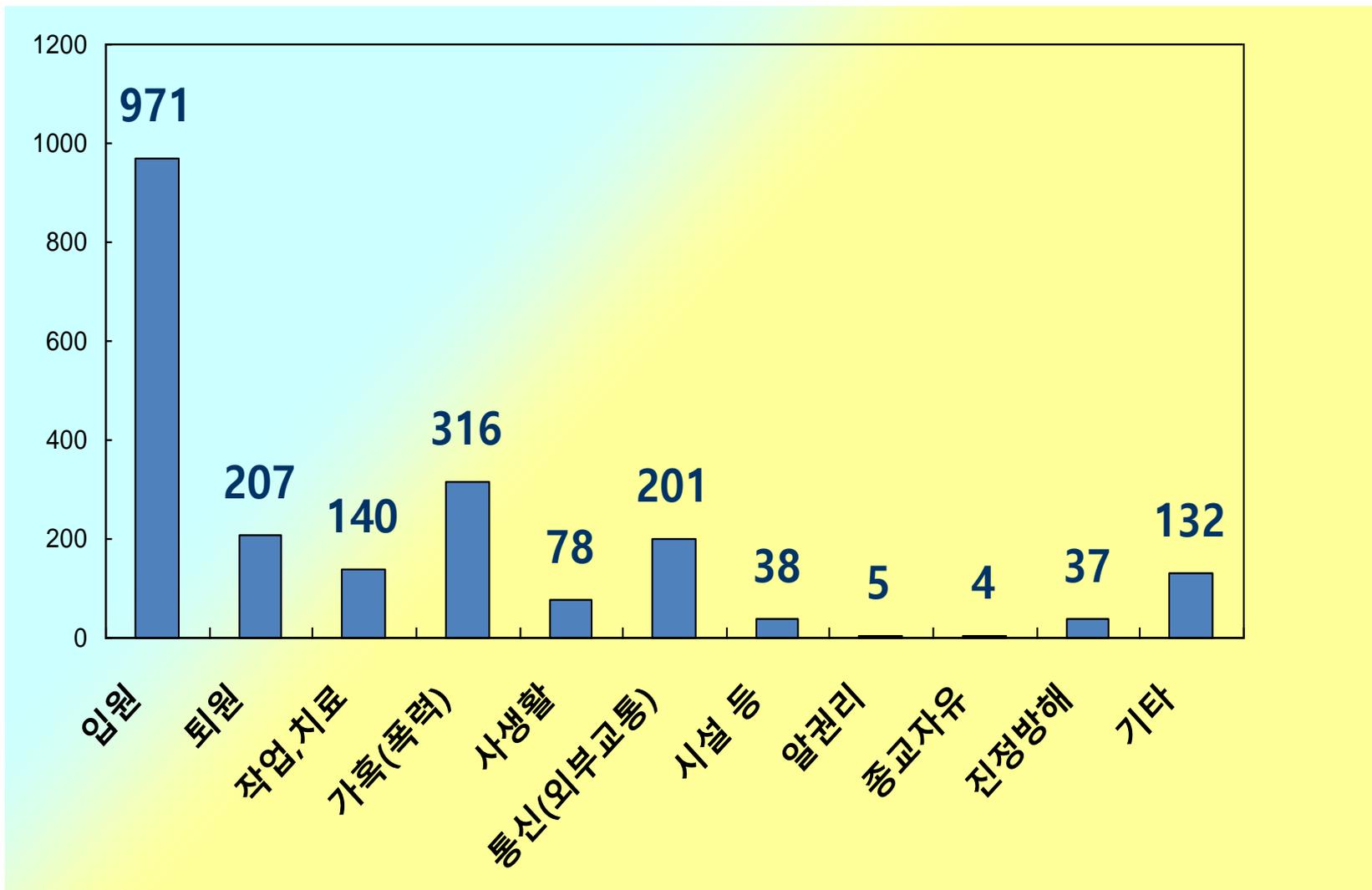
04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에서의 인권

- 입·퇴소의 자유
 - 퇴원 후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 퇴소 후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부모 이외 가족에 대한 지원
- 사회복귀시설 이용 시의 권리
 - 사회복귀시설 이용 시의 권리 / 사회복귀시설 환경에 대한 권리
- 사회적 역할 획득
 - 직업선택의 권리
 - 노동에 따른 적정보수 지급 및 관리의 자유
 - 학업의 권리 /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권리 / 일반 보험 가입권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13년 정신보건분야 진정 사건수(2,144건)



인권침해사례

-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에게 욕설 과 구타 (경남소재 모정신시설)
- 뇌가 손상되어 의사표현을 못하는 환자에게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넣고 괴롭히고, 약을 똑바로 먹지 않는다고 보호사가 환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힘 (경기도소재 모정신시설)

인권 침해 사례

정신병원 간호사 물건 훔친 환자 ‘체벌’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86년생, 지적2급)는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김모 간호사에 의해 다른 환자들이 보는 TV 앞에서 손들고 서있는 체벌을 받았다. 이를 목격한 진정인 임 모씨(70년생)는 지난 3월 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는 등 도벽증세가 있었고, 그때마다 구두로 경고받거나 30분간 손을 들고 서있는 체벌을 받았다. 하지만 도벽증세와 관련된 치료 등 별도의 진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환자를 다른 환자들 앞에서 체벌한 행위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의 도벽은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돼야 한다”면서 정신의료기관 및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물건을 훔친 환자를 체벌한 간호사를 경고 조치 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A정신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 침해 사례

입원시 신상정보·보호의무자 미확인, 법 위반

진정인 이 모씨(86년생)는 약 5년 전 진정인의 고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병원장 A씨는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고모로부터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았을 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채 방계혈족인 고모의 동의서만 제출 받고 입원을 허가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2인의 입원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장이 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증진 실천방안

국 가

- 정신보건시스템 포괄적 체계 구축
- 정책적 의지-재정적 여건, 실천의지

정신보건 전문가

- 전문가적 책임인식, 실천
- 인권감수성에 대한 지속적 통찰&노력

정 신 장 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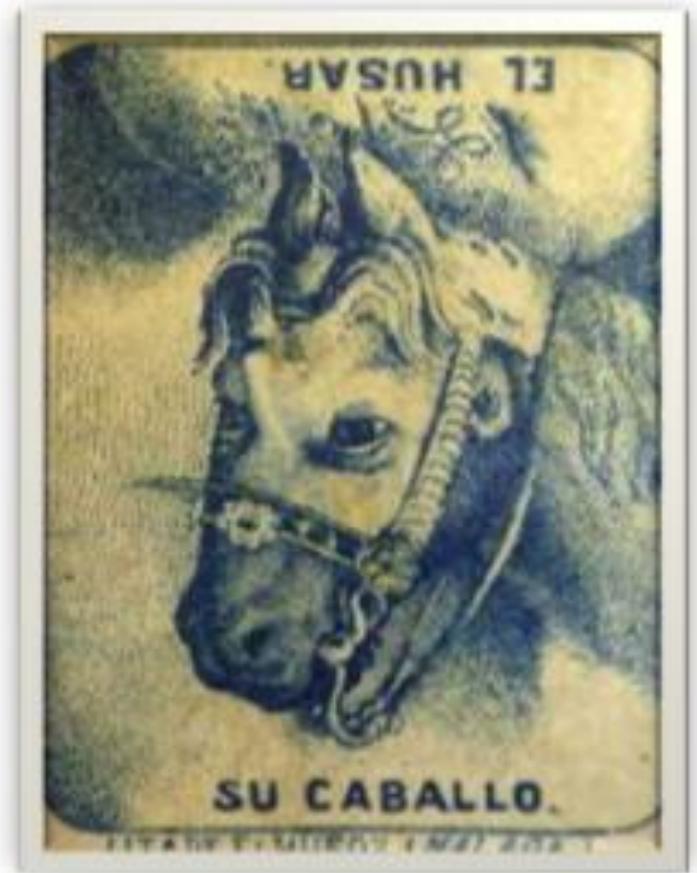
- 권리의식 고취
- 참여-당사자주의

일반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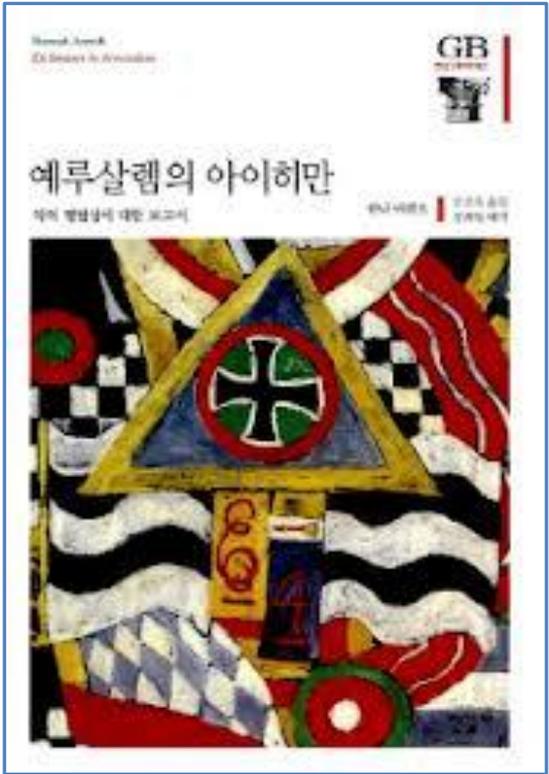
- 인권에 대한 관심
- 올바른 알기 통한 인식변화

인권이란

감추어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



인권이란



인권이란



▲ 한나 아렌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학살의 주범 중 한 사람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다. 아렌트가 조사하고 추적한 바로 보면 아이히만은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고, 별다른 성격장애도 없었고, 근면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끔찍하고 엄청난 학살의 주범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성실한 태도로 '조직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치명적 결점은 세 가지다. **생각하지 않는 것,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소신 있게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인권에 기초한 실천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
즉,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Jim Ife(2006)

인권은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깨달아야만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

따라서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거나 내버려두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